



CMP

United Business Media

DB2 CONTENT MANAGER EXPRESS: IBM TARGETS THE MIDDLE CLASS

REINVENTING BUSINESS WITH CONTENT AND COLLABORATION TECHNOLOGIES

# TRANSFORM™

MAGAZINE

[www.transformmag.com](http://www.transformmag.com)

Vol.13, No.1 January 2004

## Taking Stock, Looking Forward

2003 Recap, Trends of 2004

- CONSOLIDATION

- COMPLIANCE

Special Section:



### Will XForms Matter?

Microsoft and Adobe Forge Their Own Paths

### How to Reconcile Taxonomies

Understand the Past Before You Begin

### Production Speeds, Departmental Price

Canon's DR-9080C Is Outstanding on Paper

BILL TRIPPE

# XML Answers

## 차세대 웹 폼 시장의 라이벌, 'XForm' 과 'InfoPath'

XML은 매우 똑똑한 일련의 사람들이 'HTML이 사용하기 쉽고 광범위하게 배치된 반면 앞으로 웹 인프라와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기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태동했다. 주변에는 여전히 HTML이 넘치지만 현재 웹의 기반은 XML을 토대로 하고 있다.

글 / 빌 트리페



사실상 모든 중대형 규모의 조직들이 XML을 사용해 웹으로 올려지는 여러 데이터 소스를 저장, 변형, 통합하고 있다. 새로 부각되고 있는 'XForm' 표준은 그것이 기반으로 하는 언어와 같은 동기에서 만들어졌다. 일부 현명한 사람들은 HTML 기반 형식이 웹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축과 데이터 수집 및 검증 도구로써 장기적인 솔루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결과 W3C(World Wide Web 컨소시엄)는 몇해전 형식 작업 그룹을 구성했다. 이들의 첫번째 권장 사양인 XForm 1.0이 지난해 11월에 발표됐다.

XForm은 전자형식용 XML 기반 표준으로 개발자들이 하나의 개방구문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검증형식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XForm은 웹브라우저나 무선장치, 심지어 쌍방향TV나 프린터, 스캐너 등의 여러 환경에 배치할 수 있다. 꿈이 크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적어도 XForm은 여러 플랫폼간의 소통을 위한 표준수단으로 부각될 것이다. 일례로 카디프(Cardiff)는 이미 전자형식을 XForm으로 저장할 수 있는 '리퀴드 오피스(Liquid Office) 3.0'에 대한 플러그인을 갖추고 있다.

사실 W3C의 권고는 XForm 모델이라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것은 HTML 및 HTML 기반 형식, WML 기반 형식, 독점형식 기술 및 기타 사용자 인터페이스 도구와 더불어 사용되는 XForm을 보여준다.

물론 사용 및 실행을 거쳐야 이것들이 입증될 것이다. 사실 XForm을 지향하는 공급업체나 사용자들이 넘쳐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최근의 가장 큰 eForms 소식은 XForm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신형 전자형식용 제

XForm은 전자형식용 XML 기반 표준으로 개발자들이 하나의 개방구문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검증형식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품인 인포패스(InfoPath)다. 인포패스가 특별하게 XForm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주지할 만한 일이다. 인포패스를 통해 형식개발자는 데이터의 캡처 및 검증에 모든 XML 스키마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후 XSLT를 사용해 일부 프리젠테이션 형식을 위한 스키마를 맵핑할 수 있다. 이 접근법은 근본적으로 자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는 특정 XML 스키마인 XForm과 다르다.

그렇다면 이것은 표준기구가 왼쪽으로 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른쪽으로

가면 시장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따르는 케이스가 될 것인가? 물론 설볼리 말하기는 시기상조지만 인포패스는 카디프, 탁셀 (Taxel), 스캔 소프트웨어 (ScanSoft) 등으로부터 호환 가능한 제품을 발매하면서 그와 함께 많은 허세를 부렸다. 탁셀과 스캔소프트 모두 새로운 버전의 변환틀을 발표했는데, 모두 기존 문서의 인포패스 변환을 지원하지만 XForm로의 변환은 지원하지 않는다.

반면 EML을 이끌었던 똑같은 힘이 XForm 역시 이끌었다. XForm 권고

문의 주저자 중 한명인 카디프의 마이클 듀빈코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든다. 한 업체가 250가지 형식을 eForms로 변환하려 하는데 이러한 형식을 적합한 포맷으로 생성하는 데는 1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자. 이 형식을 다른 플랫폼에 배치해야 할 경우 형식을 변환하거나 완전히 다시 생성해야 할 것이다. XForm은 사용자를 공급업체로부터 독립시켜 주며 주어진 형식을 많은 플랫폼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혼란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어도비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포패스와 마찬가지로 어도비의 현재 Forms Designer는 중간 XML 스키마를 지원하지만 XForm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프리젠테이션 측면에서 PDF에 주로 의존하지만, 2003년 말에 출시된 차기 Forms Designer 버전이 지원할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어도비와 카디프를 비롯한 기타 eForms 업체들은 부분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XForm를 회생시킬 것인가? XForm는 자체적으로 모멘텀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또는 인포패스가 시장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임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가 eForms 공간을 추진할 것인가? 율하반기쯤에는 시장의 대세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빌 트리페

빌 트리페(btrippe@nmpub.com)는 전자출판, 콘텐츠 관리, SGML, XML을 전문으로 하는 보스턴의 컨설턴트 기관인 뉴 밀레니엄 퍼블리싱의 대표를 맡고 있다.

# Content & Collaboration

## Taking Stock, Looking Forward



## 콘텐츠 및 공동작업에 대한 정밀평가와 기대

콘텐츠 및 공동작업 세계에서 지난해는 협업이 사용자 커뮤니티에서 중앙무대를 차지하고 통합이 기업 콘텐츠 관리(ECM) 커뮤니티의 형세를 바꾸며, XML 가능 콘텐츠가 전면에 부각되고 업무 공정관리가 초창기 무대에서 관심을 받았지만 결국 연초와 매우 흡사하게 끝났다. 많은 인수합병과 제품발매, 그리고 최신기술의 시범 사용이 있었지만 그 이면의 시장방향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글 / 페니 런트, 덕 헨센, 할 글레이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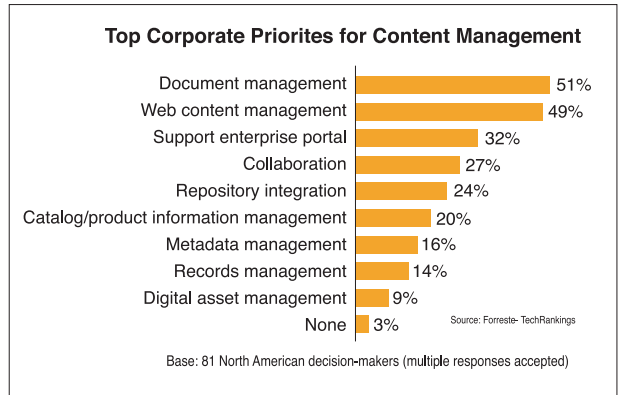
**협업**업과 통합은 IBM과 다큐멘텀(Documentum)이 기록관리업체인 Tarian과 TruArc를 각각 인수한 2002년말부터 이미 중요한 추세였다. 이들 거래는 기록관리가 ECM의 우산 밑으로 들어온 또다른 기술이 된 한가지 예에 불과하다. 그러나 2003년에는 공급업체가 단지 기록관리에 그치지 않고 협업까지 지원하겠다는 보다 큰 약속에 더욱 주력하는 진전이 있었다. 전자메일 보관, 공동작업, 워크플로우, 보고서 관리를 비롯한 여러 툴이 나왔을 뿐 아니라 기록관리가 지난해 발매된 대다수의 공동작업 솔루션 및 에디션에서 선을 보였다.

2002년 또는 그 이전부터 Sarbanes-Oxely 법과 Patriot 법을 비롯한 많은 규제들이 도입됐지만 주류 기업계가 마침내 공동작업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지난해에는 발전이 있었다. 메타그룹이 100곳의 대형 상장회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이들 중 약 90%가 Sarbanes-Oxely 공동작업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가트너가 발표한 별도의 연구결과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응답자 중 85%가 공식적인 공동작업 예산이 없으며 21%만이 3분기에 걸친 공동작업의 노력을 마쳤다고 답했다.

### 협업과 통합: 최고는 아직 없다

아직은 공동작업에 착수하기 이르고, Sarbanes-Oxley 법의 준수시한도 2004년 중반으로 연기됐다. ECM 공급업체는 공동작업이 장기적인 성장시장이며, 바로 이 때문에 2003에 통합의 바람이 불었다고 여긴다. 일례로 웹콘텐츠 관리에 중점을 두던 캘리포니아주 써니베일에 있는 Interwoven은 공동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iManage를 인수합병했다. 이것을 계기로 Interwoven은 보다 광범위한 ECM 기술을 보유하는 동시에 iManage의 전자메일 보관툴까지 얻게 됐는데, 지금 이 회사는 공동작업 위주 제품의 대표격이 됐다.

또다른 통합의 예를 들자면, 온타리오주 워털루에 본사를 둔 Open Text는 지난해 10월 독일 뮌헨의 Ixos Software AG와 사업부를 합쳤다(이것은 초기에 미국과 유럽에 사업부를 두고 있던 또다른 ECM 업체인 Gauss를 인수한 뒤의 일이다). Ixos와의 거래는 아직 언론을 통해 완전히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Open Text는 판매면에서 북미 지역과 유럽에서 부러운 시장지위를 갖춘 선두



적인 ECM 공급업체가 되려 하고 있다. Ixos의 전자메일 보관툴은 Open Text의 기록관리 기술을 보완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번 합병은 공동작업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Ixos의 툴은 선두적인 스토리지 공급업체들과의 수차례에 걸친 공동작업 관련 제휴에서 눈에 띄게 부각됐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자회사 San Mateo의 맷 서플레토 최고경영자는 공동작업을 종료 일자 없는 Y2K라고 묘사했다. 지난 12개월 동안 기업들은 무엇이든 해보려고 무진 애를 썼다. 이제 규칙은 정해졌고 이제는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규정 및 규제는 항상 후속조치가 따랐지만 공동작업은 점차 정밀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 차원에서 뭔가 해야 할 시기는 바로 지금인 것이다.

또다른 공동작업 관련 통합을 들자면, 지난해 10월 메사추세츠주 홉킨튼에 있는 스토리지 파워하우스 EMC는 약 17억달러에 다큐멘텀을 인수할 의향이 있다고 발표했다. EMC는 이미 2003년 초 레가토(Legato)를 인수하면서 스토리지, 전자메일, 문서관리 시장의 소프트웨어 수익까지 확보했지만, 다큐멘텀은 콘텐츠 관리, 스토리지 관리 및 EMC Centra를 비롯한 스토리지 하드웨어간의 조화를 배경으로 하는 정보수명 주기관리 전략의 중심부 역할을 할 것이다.

기업 콘텐츠관리 경쟁의 마지막 최전선으로 갈수록 기록 및 전자메일 관리는 하향세를 보일 것인가? 2003년 많은 ECM 공급업체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기수를 튼 것으로 바서는 그럴 것 같지 않다. 일례로 FileNet과 StaffWare, Identitech는 2003년 자사의 플랫폼에 업무 공정관리 기능을 추가했고 다른 워크플로우 위주 공급업체들도 이러한 추세를 따르고 있다.

## 콘텐츠의 공동작업과 스토리지

다양한 업계 및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신규 규제 덕분에 전자메일이나 인스턴트 메시지를 비롯한 많은 문서와 전자 콘텐츠 형식의 수명이 훨씬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자서신 보관의 경우는 소프트웨어에게 일종의 난제인데, 전형적으로 텍스트가 구조화되었는지 않거나 형식이 일관적이지 않고 생성 즉시 색인이 거의 붙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용어가 있는데, '콘텐츠 어드레스 가능 스토리지' 라는 것이다.

그럼 이처럼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콘텐츠가 상주하는 곳은 어디일까? 항상 사운드 보관 관례대로 거의 필요없는 기록을 통상 온라인이나 니어라인(nearline)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부터 테이프로 복사해 저가의 매체로 옮긴 후 당장 필요한 데이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원본을 삭제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하드드라이브의 가격이 많이 내려갔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신뢰성을 갖췄기 때문에, 어레이 및 스토리지 영역 네트워크(SAN) 등의 신형 하드드라이브 기반 스토리지 시스템은 저가의 테이프나 테이프 라이브러리를 부정하거나 최소화하고 보관된 기록의 검색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업무 관리자는 새로운 규칙 내에서의 작업 방법을 심사숙고하는 한편 IT관리자는 콘텐츠 어드레스 가능 스토리지 및 하드웨어 솔루션에서 폭넓은 선택권을 가지게 됐다. 각 기업이 준수해야 할 규격(이러테먼 SEC 17a4, Sarbanes-Oxley, Basel II, NYSE Rules 44, NASD Rules 3010/3110 등)은 고객이나 신용업계의 관례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생성·삭제 주기가 보존기간이 길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며 보다 많은 데이터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타당하다.

이 기회를 가장 먼저 포착하고 추진한 업체는 메사추세츠주 흡킨튼에 본사를 둔 스토리지 전문업체 EMC다. 지난해 레가토와 다큐멘텀(후자의 거래는 아직 공식적으로 언론에 공표되지 않았다)을 인수한 EMC는 올해 고정 콘텐츠 관리로 여겨지고 있는 현재의 영역에서 진정한 콘텐츠 어드레스 가능 스토리지를 향해 도달범위를 확장할 것이다. 새로운 규제는 이 업체가 보관기록의 신속한 검색, 쓰기 및 다량의 데이터 읽기를 위해 최적화시킨 제품 라인인 'Cenera'를 발전시켜 향후 전자서신까지 포함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를 추진하는 것이 EMC뿐만은 아니다. 히타치데이터시스템에게도 해당된다. "똑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히타치 글로벌솔루션 서비스부문 데렉 개스콘 산업용솔루션팀장의 설명이다. 또한 "기업들은 상당량의 정보가 구조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을 관리하려면 스토리지 환경과 더불어 보관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EMC가 다큐멘텀 인수를 계기로 콘텐츠관리 영역에 한발 더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히타치의 접근법은 독일 뮌히히의 Ixos Software AG와 제휴하는 것이었는데, 이 업체 자체가 기업 콘텐츠관리 공급업체인 Open Text에 인수되는 과정에 있다. 개스콘 팀장은 "Open Text와 Ixos의 결합으로 다큐멘텀보다 더욱 큰 규모의 세계 최대 기업 콘텐츠관리 공급업체가 탄생할 것이다. 덕분에 우리에게도 공동 작업 소프트웨어 및 기록 관리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솔루션을 공급할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개스콘 팀장은 히타치의 하드웨어가 이미 Ixos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있고, 이것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및 히타치 스토리지 관리 소프트웨어와의 통합을 위한 기초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흥미롭게도, 개스콘 팀장은 콘텐츠 어드레스 가능 스토리지로의 이동으로 인해 반드시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처리할 정교한 하드웨어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의 데이터 수명관리 솔루션을 공급할 대상으로 기존의 하드웨어 플랫폼을 정했다"고 개스콘 팀장은 말했다. 두 유망한 솔루션 중 첫번째 것은 9월 말이면 출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히타치 모델 9580V 모듈식 하드디스크 어레이에 Ixos 소프트웨어를 탑재한다고 한다. 히타치의 데이터 보관 관리자는 아직 개발 단계에 있으며 오는 2분기 중에 출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제품은 데이터 생성 후 '읽기 전용' 상태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서 실행되는 WORM과 비슷한 환경이다.

공동작업 관련 스토리지 우려를 해결하는 또다른 경쟁업체는 루이빌에 본사를 둔 스토리지텍으로 지난해 11월 Ixos와 제휴할 계획이라고 발표할 바 있다. 이곳은 스토리지텍 이메

일 Xcelerator 라인의 일부로 Ixos의 Exchange용 문서 및 전자메일 보관 eCONserver와 로터스 제품용 eCONserver를 OEM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Ixos의 기업 전반 eCONserver 솔루션 스위트도 판매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본사를 둔 스토리지 관리 및 재해복구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인 베리타스 역시 지난해 11월 초 발매된 '베리타스 Data Lifecycle Manager 5.0'을 발매하면서 공동작업을 다뤄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 업체 비즈니스 커뮤니티그룹의 글렌 그로산스 제품마케팅팀장은 "공동 작업이야말로 당장 기업들이 자금을 지출하도록 만들 건인차다. 그러나 단순히 공동작업 이외에도 데이터를 관리해야 할 또다른 이유가 있다. 이른바 시간 이상의 비용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데이터를 저렴한 스토리지 매체로 옮기려는 유혹이 생긴다. 그러나 온라인 데이터를 보유하는 것은 여전히 갈망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베리타스의 Data Lifecycle Manager를 통해 파일 종류, 생성 또는 액세스 일자 등의 보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나중에 기업 전반이나 이를테면 법무 부서 등의 특정 영역 내의 서버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그로산스는 공동작업이라는 무대에서 베리타스의 제품이 "확장의 일환으로 우리의 백업과 복구 제품에 통합된 것이다. 단지 보관만을 위해 복잡한 신형 스토리지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기존의 테잎을 백업하고 거기에 인덱스를 부여하며 Data Lifecycle Manager에 포함시키는 능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뉴욕주 아몽크에 소재한 IBM 역시 콘텐츠 및 공동작업 위주의 스토리지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IBM의 하드웨어뿐 아니라 HP와 썬 플랫폼에서도 실행되는 DB2 Content Manager에 주력하고 있다. IBM 시스템그룹의 앨런 스튜어트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선임 전략팀장의 말에 의하면 데이터 보관용 DB2 Content Manager는 여러 제품들의 결합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보관 관리 작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심층적으로는 이벤트 기반 기록관리 등 최초의 기능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증거거래계좌용 애

“

하루에 수백만통의 전자메일을 생성한다고 하자. 그것을 모두 보관하려 한다. 트래픽을 관찰하고 일상적인 서신과 중요한 거래를 구분하며, 솔직히 말해서 위험한 행위를 식별하려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규제의 일부다.

”

플리케이션의 경우 계좌가 해지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이벤트는 기록 차원에서 사용자 또는 분류별로 정의할 수 있다"고 스튜어트는 말했다. 또한 2003년 말 이전에 데이터 보관용 DB2 Content Manager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의 설명의 의하면 IBM 역시 타 공급업체들과의 상당한 연계를 포함한 개방 스토리지 전략을 10년 이상 지속해 왔다고 한다. 최근에는 Green Pasture라는 업체와 제휴를 맺고 공동연구 작업용 DB2 Content Manager라는 확장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스튜어트는 "분석가가 수집하는 최초의 사실뿐 아니라 여러 손을 거치면서 이뤄지는 다양한 수정 및 변경 내용까지 하나의 보고서에 들어가는 모든 아이টে에 대한 워크플로우 및 문서관리 능력을 생성할 것이다. 일부 규제에 따라 최종 보고서의 일부 요소의 경우 출처를 역추적해야 할 경우도 있는데, 바로 이 프로그램이 내가 말한 이른바 감사 추적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공동작업 기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IBM이 제휴를 맺은 또 다른 업체는 iLumin이라는 곳인데, 전자메일 관리 소프트웨어를 공급한다. "하루에 수백만통의 전자메일을 생성한다고 하자. 그것을 모두 보관하려 한다. 트래픽을 관찰하고 일상적인 서신과 중요한 거래를 구분하며, 솔직히 말해서 위험한 행위를 식별하려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규제의 일부다. 즉 더이상 '이런 세상에'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새로운 규제를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무지는 기쁨이 아니라 위법'이라는 것"이라고 스튜어는 말했다.

지난해에는 Vignette가 Intraspect와 Stellent를 인수하고 Percussion이 내부적으로 공동작업 툴을 추가하면서 공동작업이 웹콘텐츠 관리 위주의 ECM 업체들의 초점이 됐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IBM이 기업용 공동작업 제품을 내놓음에 따라 나머지 독립업체들은 점차 처지게 됐고 콘텐츠관리 업체들의 경우 인수를 하거나 OEM 제휴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해지기 쉽게 됐다.

디지털 자산관리는 소수의 ECM 공급업체들이 공격적으로 다두고 있는 또다른 전선이다. IBM과 다크멘텀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고 2003년에는 Interwoven과 Stellent가 Mediabin과 Ancept를 각각 인수하면서 여기에 합류했다. 하지만 Canto나 Artestra 등의 강력한 디지털 자산관리 공급업체들은 여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보다 넓고 가시적인 기업 전반의 배치에 초점을 두고 공동작업 위주의 ECM 업체를 대상으로 인수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메사추세츠주 프레이밍햄에 있는 IDC의 수 펠드먼은 “기능 및 모듈의 축적이 콘텐츠 인프라의 출현을 향한 추세的一部分”라고 말했다. “이것은 텍스트 마이닝, 검색, 콘텐츠 관리, 워크플로우 등 그동안 분리돼왔던 모듈이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통일시킨 대형 플랫폼에 맞춰지는 새로운 종류의 미들웨어가 될 것으로 본다. 이것의 전인차는 기업들이 이러한 정보창고를 모두 갖추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조직 내에서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림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 기능 및 모듈의 축적이 콘텐츠 인프라의 출현을 향한 추세의 일부

Sue Feldman,  
IDC



### 활성문서, 주류로 진입

펠드먼이 관찰한 또다른 추세는 정보 저장소를 훨씬 뛰어넘는 전자 콘텐츠인 ‘활성문서’의 출현이다. 활성문서는 업무 규칙과 업무 로직, 내장 코드가 들어있는 지능형 인터랙티브 파일이다. 정보를 포착하고 애플리케이션과 쌍방향 소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는 사람의 작

업 방식을 바꾸게 될 것이다.

활성문서는 ‘어떻게 항상 정보와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해결해 준다. 펠드먼은 “활성문서와 쌍방향 소통할 수 있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하지 않고 특정 종류의 프로세스에 착수할 수 있다. 문서 자체가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호출해준다”고 설명했다.

활성문서의 예로 여러 해에 걸쳐 교체부품을 수령 및 수리하는 항공기용 기술 매뉴얼을 들 수 있다. 이 매뉴얼은 모든 변경 사항들을 반영하므로 기술자는 작업에 들어가면서 현재 정보에 관한 인터랙티브 다이어그램과 부품번호 등을 확인한다. 에어컨 시스템 스위치 등의 부품을 교체해야 할 경우 기술자는 다이어그램에서 해당 부품을 클릭한다. 활성문서는 재고창에 부품을 새로 교체해줄 것을 요청하고 교체담당 기술자의 감사 추적을 생성하며, ‘스위치를 교체하려면 X, Y, Z 부품도 교체해야 한다’는 등의 피드백을 기술자에게 제공하기까지 한다.

XML 출판과 전자상거래, 공급망 관리 및 작업 공정까지 콘텐츠에 혼합하는 솔루션은 고도의 기술적인 영역이었지만, 분석가들은 활성문서가 빠르게 주류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한다. 항공기 부품 예에서 다이어그램 요소는 Corel의 스마트 그래픽스 스튜디오 등의 인터랙티브 시각화 소프트웨어로 처리할 수 있다. 업데이트, 주문, 감사 추적, 피드백은 마이크로소프트 인포패스(InfoPath)나 어도비 아크로벳 6.0 등의 1세대 활성문서 소프트웨어로 제공할 수 있다(인포패스를 통해 웹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XML 기반 전자형식을 구축할 수 있다. 아크로벳 6.0은 문서를 둘러싼 공정을 구축하기 위한 API를 제공하고 XML을 PDF와 통합시킨다). PureEdge와 카디프 역시 코드와 함께 탑재할 수 있는 기반 형식을 제공하므로 활성문서가 된다.

유사성이 있기는 하지만 활성문서를 전자 형식 소프트웨어와 혼동하면 안된다. IDC의 조슈아 델 수석 연구원은 “이제 차별화를 실현시킬 내장코드를 얻었다. 전자 형식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내지 일부 종류의 입력을 수용할 수 있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한다. 그러나 활성문서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코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구매 주문 처리, 검색 유발, 결과 되돌리기, 승인된 비용 보고서 확보 등) 모든 종류의 워크플로우 및 트랜잭션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워크플로우나 업무공정 관리에 관여하지 않고 공정을 추진할 문서를 원할 때는 언제일까? 델 연구원은 “활성문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나 어도비 리더만을 갖추고 있는 소규모 공급업체들을 상대하는 대규모 자동차 제조업체에 유용할 것이다. 주문 내용이 담긴 활성문서를 소규모 업체에 전송하면 제조업체로 다시 돌아오고 주문이행 측면까지 협상한 후 다른 공급업체로 옮길 수도 있다. 활성문서에는 주문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로직이 있다. 이것은 업무과정 내부에 구축하기 힘들다. 바로 소프트웨어 자체에 의한 협상 개념의 시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 BPM 소프트웨어 정통성 획득

지난해 1월, <트랜스폼>은 2003년은 경기침체 속에서도 업무공정 관리 소프트웨어 부문이 빛을 발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는데, 그 이유로 비용절감 능력과 신속한 투자회수 능력을 들었다. 우리가 다소 지나치게 열광한 것은 확실하다. 지난해에는 많은 BPM 도구가 선을 보였지만 광범위한 도입물결은 일어나지 않았다. 사실 많은 IT 및 기업 임원들은 여전히 BPM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것을 보유할 이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이것이 출현할 당시, 이미 모두가 업무공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그것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있는지는 것이었다. 사실 BPM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BPM 시스템의 도움으로 보강할 수 있는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며 인터랙티브 접근법이다.

지난해 그토록 많은 기업들이 BPM을 준비하지 못한 큰 이유는 단일 업무공정을 정밀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한편 그 공정만을 재설계하거나 BPM을 여러가지 기업 전반 공정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BPM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뿐 아니라 외부 컨설턴트의 도움까지 얻어야 하고 공정개선을 위한 교육 및 접근법이 정착돼야 하지만, 비효율성과 비용을 개선하면서 생산성 및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AMR리서치의 에릭 오스볼드 선임 연구원의 말에 의하면 올해는 BPM이 번성할 것으로 보인다. “2003년에는 기업들이 한 일에 테마가 있었고 그것은 합리화의 범주 안에 들었다. 임원들은 과거에 추진했던 투자를 어떻게 합리화시킬 것인지, 또한 그러한 투자가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했다”고 그는 말했다.

또한 그 대답은 대부분 ‘아니다’라고 오스볼드 연구원은 말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많은 기업들이 IT제품 구매를

● 포춘지 선정 100대기업과 정부기관의 활동 중 상당 부분에서 BPM 전략과 필수 프로세스를 취합시키고 있다.



Eric Austvold,  
AMR Research

동결했다. 그러나 BPM의 동기 및 기술은 ERP 등의 기존 시스템을 다른 용도 및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최적화시키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BPM을 거부하기 더욱 어려운 것이다.

올해 BPM의 개시를 촉발시킬 또다른 발전은 SAP를 비롯한 거물들의 BPM 도입이 될 것이며, 상당한 BPM 홍보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오스볼드 연구원은 “지금까지는 소수의 선도적인 사고를 지닌 IT조직들만이 BPM을 다뤘다. 2004년에는 주류 시장에도 이것이 개방될 것이다. 그러면 오라클이나 피플소프트, 시벨을 비롯한 업체들이 이것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고 IT 구매자들에게는 일반적인 용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카고에 본사를 둔 Doculabs의 빌 챔버스 수석 분석가는 “포춘지 선정 100대기업과 정부기관의 활동 중 상당 부분에서 BPM 전략과 필수 프로세스를 취합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솔루션 선택작업과 실제 투자가 2004년 초로 예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각 연구소들도 내년에는 금융 및 보험 업계를 비롯해서 지방정부에서도 BPM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BPM이 기업 콘텐츠 관리나 콘텐츠 인프라, 또는 보다 광범위한 기타 범주와 겹쳐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스턴에 있는 Patricia Seybold Group의 제프리 북 부사장은 “1~2년 내에 콘텐츠가 업무공정과 통합되면 BPM 제품범주는 더이상 언급되지 않을 것이다. ECM의 범주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아직 고안해내지 못한 범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콘텐츠 전달뿐 아니라 콘텐츠 소비방법 측면에서도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도 콘텐츠 소비를 촉진시킬 방법을 더욱 많이 모색하고 있다. 성공을 거둔 BPM업체들은 콘텐츠 보유업체들과 보다 밀접한 통합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 ASK THE EXPERTS

글 / 페니 런트



# 구 분류법과 신 분류법의 조화방법

신규 문서와 기존 문서에 걸친 분류 및 콘텐츠 시스템 관리작업은 난제가 될 수도 있다. 구 분류법을 없애지 않고 새 분류법을 생성할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로라 라모스 포레스터 연구소장(캘리포니아주 산타 클라라)

새로 분류 작업을 시작할 때와 구 분류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경우 모두 지속적인 변경을 관리하기 위해 리소스 및 공정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현재 사용자에게 미치는 장애를 최소화하면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일정 및 사유가 확실하게 논의되지 않으면 실망하는 경우와 도움요청이 늘어날 것이다.

기존의 분류법을 개선하는 최적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변경요인을 확실하게 파악한다. 기업 인수합병, 신제품 및 신규 어휘 등이 모두 변경 사유가 될 수 있다.

2. 분류법의 내력을 이해한다. 관계 및 전 문용어가 분류법에 포함된 이유와 현재의 체제 덕분에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한다. 사업결과와 연계된 차후 변경을 관리하기 위한 공정을 정한다.

3. 지식감사를 수행해 얼마나 많은 분류법이 마련됐는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영향

을 미치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또 현재의 관련사업 현안과 신개념 및 구개념이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 알아야 한다.

4. 중지할 때를 알아야 한다. 완전히 분리된 두개의 분류법을 병합하는 일은 가치를 전달하는 것보다 완성 및 유지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단계별 접근법을 계획하는 것도 이러한 난관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칼 프라파울로 델피그룹 부회장 겸 공동 설립자

존 돈은 “사람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사업분류에도 해당되는 얘기다. 분류법은 고립돼서 존재하지 않고 공동체적 견지 및 콘텐츠 예정 용도, 사업 배경 등과 밀접하게 연계돼야 한다.

새로운 분류법에 의해 재래식 분류법이 사라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구 분류법의 토대 위에서 구축되거나 그와 연계돼야 한다.

업무 분류학은 정적인 개체가 아니다. 분류학은 지식의 한 형태이며, 지식은 끊임없

이 진화한다. 따라서 모든 신규 분류학은 이전 분류학의 평가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그것을 다듬어 시작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분류학 구축은 새로운 분류학을 정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예를 들어 ‘이것을 구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대상은 누구이고 원하는 용도는 무엇인가’가 바로 그것이다. 다음으로 ‘이 분류법이 독자적임 검색 및 내비게이션식 접근법이 될 것인가’, ‘과연 프론트 엔드 툴이나 백엔드 툴, 또는 둘 모두로 검색엔진을 보강할 것인가’, ‘다

른(구 또는 신) 분류법과 더불어 사용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연계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문에 답하는 데 있어 사업의 목적과 예상 사용자의 필요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가장 좋은 분류학 구축방법일 뿐 아니라 새로운 분류법으로 인해 구 분류법이 불필요하게 사라질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Copyright CMP Media LLC)